



↗ 'R'의 분모를 줄일 수 있음.
↗ 'equity': 자본

↗ '자사주 소각'라 거의 동일함.

유상감자의 쉬운 뜻 =

회사가 주식을 줄일 때, 일정 돈을 지불하고 주식수를 줄여버린다.

흠, 솔직히 와닿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스읍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거예요.

만약 용산의 컴퓨터 회사인 케빈 주식회사의 주식이 총 1000 주라고 해보지요.

그리고 현재의 주식당 가격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케빈주식회사에서 유통 주식의 반인 500 주를 제값을 지불하고 사드렸습니다. 즉, 각 주식을 100원에 총 500 주를 사 들여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모두 소각(불태워 버려!)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유통주식수는 총 몇주가 될까요? 500 주로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500주를 케빈이 사들여서 불태워 버렸으니까요.

그럼 일반 주주들의 주식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주식 10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5개로 줄어듭니다. 다만, 날아간 5개 주식에 대해서는 케빈주식회사에서 500주를 100원 주고 사들였으니 5개의 주식이 날라간 주주분에게는 500원이라는 손해 없는 본전의 돈이 돌아오게 됩니다.

4)무상감자

뜻.

-기업이 주주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식발행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이므로 기업의 "순자산"은 그대로이고, 감자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합니다.

한 줄 요약으로, 기업이 자본(=순자산) 대비 자본금을 감소시켜서 자본잠식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 자본잠식이란? 세 줄 요약으로, '자본'보다 '자본금'이 더 큰 상태를 뜻 합니다.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구조인데, 회계상 자본액수 보다 자본금액수가 더 큰 상태를 말합니다.

'등식이 이러한데 그게 가능하냐?' 하실테지만 회계논리상 가능합니다. 그이유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pass합니다..

아무튼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액수보다 자본금액수를 낮춰야하므로 기업은 무상감자를 하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무조건 악재입니다. 도망가세요... (증권맨은 '감자'탕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앞서 말 했듯, 무상감자는 기업이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즉 관리종목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피눈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기업이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

-앞에 다 이야기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무상감자의 의미는 주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금을 자본보다 낮추는 형태입니다. 즉,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감자의 방법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본금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아래 식에서 보듯이 자본금은 액면가 x 발행주식 수 이기 때문에 감자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자본금} = \text{액면가} \times \text{발행주식 수}$$

1. 액면가 감소 (가격을 내림)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가를 감소시켜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주식수 감소 (수량을 줄임)

액면가 변동 없이 주식수를 감소시켜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併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감자를 할 때 사용됩니다.

자본잠식 상태인 (주)줍줍(액면가 5000원, 총발행주식 1000주)은 10대1 무상감자를 결정해요. 기존 10주를 1주로 줄이고 9주는 태워버리기로한 것. (주)줍줍의 주식 10주를 들고 있는 A의 주식수도 1주가 돼요. 하지만 A의 주식가치는 이론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감자비율(10대 1감자, 90%)만큼 기준주가가 올라가기 때문.

